



"닫는 말에 채질한다고 경상도까지 하루에 갈 것인가"

뜻: 이미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을 채찍질해도 더 빨리 갈 수 없듯이,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무리하게 재촉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재촉 · 무리 · 한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닫	는	↓	말	에	↓	채	질	한	다	고										
경	상	도	까	지	↓	하	루	에	↓	갈	↓	것	인	가	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닫	는	↓	말	에	↓	채	질	한	다	고										
경	상	도	까	지	↓	하	루	에	↓	갈	↓	것	인	가	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드] [모] [*자*] [*사*] [*르*] [*] [*]

웹에서 보기

